

로자박 <대항 폭력에 대한 아주 짧은 단상>

로자함스부르크



여러분들이 눈치 채시겠지만, 저는 폭력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폭력에 대한 체질적 반감이 강한 데다가 늘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권력'을 회의적으로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흑인에 대한 살인적인 경찰 폭력을 반대하는 소위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원리원칙으로 따지면 대항 폭력도 폭력이며 당연히 자체의 대상이 돼야지요. 미국 경찰관들 중에서는 역겨운 인종주의자들이 흘러넘치지만, 경찰관 몇 명에게 부상을 입힌다고 해서 그들이나 그 동료들이 인종평등론을 배울 일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폭력 시위에 아예 무관한 행인이나 상인부터 피해를 볼 수 있고, 끝판까지 가서 군이 개입되면 민간인 희생부터 많을 수 있어, 폭력은 당연히 시민적 '자체'의 대상이 되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도 누구나 다 동의할 원론입니다.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따지면 국가 권력에 대한 비폭력 행사의 하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국가 권력부터 피치자를 '동류'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서방의 병역거부자 단체들도 늘상 '식민지에서의 피식민자들의 저항은, 폭력저항이라 해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곤 합니다. 식민지 권력자들은 피식민자를 애당초부터 '동류'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식민자들도 식민 권력자에 대한 동류 의식이 존재하기가 힘들어, 식민지 해방 전쟁은 가끔가다가 정말 무서운 폭력의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알제리의 전투> 같은 영화를 보시면 뭘 말인지 바로 아실 것입니다. 백인 식민 정착민들의 아이들이 많이 들어 있는 카페에서 수류탄을 터뜨리는 저항세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수궁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누구에게요. 한테 특히 유럽인으로 태어난 저 같은 사람들은, 유럽 식민주의에 맞서 싸운 사람들에게 대해 '비판'을 잘 못합니다.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원주민"을 처음부터 '동류'로 인정하지 않은 그 '원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황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인 경찰관들에게는 흑인은 '동류 시민'은 아닙니다. 일부 경우에는 차라리 '사냥감'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잠재적 범죄자, '시민'이라기보다는 3등 주민 정도입니다. 흑인에 대한 살인적 폭력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폭력에 대한 대응이 폭력적 모습을 띠는 것은, 과연 그렇게 놀라운가요? 나와 내 부모, 조부모, 10대의 내 조상들이 저 사람들과 그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동류' 취급을 받지 못해왔다면 과연 나는 저 사람들을 '동류'로 인식하여 저 사람들에게의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제라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든 어느 사회든 당연히 비폭력을 향해 가야죠. 한테 거기서 가자면 일단 필요한 게 흑-백의 차별 없는 '동류 시민'의 공동체 형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등한 공동체가 형성되자면 흑인에 대한 구조적 폭력, 그리고 구조화된 경제적 불이익 등부터 철폐돼야 되고, 아주 적극적인 지원책들부터 필요합니다. 인종차별의 유산을 청산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정책'은 비폭력으로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정책들이 실시되기 전에는 우리는 전형적인 '빈민 봉기'의 모습을 계속 볼 것입니다. 그리고 '빈민 봉기'는 고대부터 최근까지 늘 폭력적이었습니다. 1862년 조선의 민란 같은 걸 생각해보시죠. 그 폭력의 책임은 과연 들고 일어난 민초들에게만 있나요?

https://m.blog.naver.com/vladimir_tikhonov/221989238315